

나눔 36.5도의
따뜻한 선물,
아름다운 이웃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푸른 하늘을 보라

김준엽

비탈길을 넘어 가다
지치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길 거야

힘준한 삶을 넘다가
마음이 나약해지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바라보면
강한 마음이 생길 거야

푸른 하늘을 보면
힘을 잃어버린 몸에
하늘의 온기가 전해지며
몸에 힘이 가득 차오르고
나약해진 마음에 굳은 햇살 받으면
강한 마음으로 변해진다

비탈길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의 길일 뿐인데
넘다 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의 끝이 보이리니

삶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의 삶의 고개일 뿐인데
살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고개를 넘어 가리니

NEW LEADER, RECREATE, SAMPYO

<삼표愛>는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09



17



19



21



25



33

新年辭

친애하는 삼표 가족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04

새해 다짐

닭띠들의 정유년(丁酉年) 새해 다짐

06

HOT! 이슈

국토를 횡단한 삼표의 '뜨거운 사랑'
인천 - 서울 - 삼척 사랑·나눔 실천 릴레이

08

성공열쇠

친해지길 바랍니다

12

현장 속으로

버려진 폐기물에서 유용한 'Fe(철) 기물' 수확하다
(주)네비엔 단양공장

14

소개합니다

삼표동양시멘트(주) 25년 근속 주인공을 만나다
배동환·이연재 상무

18

오늘은 내가 쓴다

전화는 사랑을 싣고
삼표기초소재(주) 영업1팀 김보영 과장

20

맛있는 발견

광화문 일대, 어디까지 맛봤니?

22

포토 이벤트

셀카 특집, 삼표그룹과 함께한 순간

24

건강을 부탁해

당뇨, 원인을 알면 쉽다

26

지식 통

보건소가 달라졌어요

28

트렌드를 말하다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덴마크 휴게(Hygge)라이프

30

여행을 떠나요

강원도로 떠나는 겨울 여행

32

SAMPYO NEWS

인재개발팀,
하반기 수시입사자 기본 교육 실시 외

34

사우 동정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38

열린 편집실

독자 퀴즈

39

www.sampyo.co.kr (주)삼표 사보 '삼표愛'

2017년 겨울호(Vol.53) 계간 비매품 •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 전화 02-460-7111 • 발행인 이종인 • 편집인 이소정 • 발행일 2017년 2월 17일
•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 02-3447-7601 • 인쇄 나인 02-2278-0773



친애하는 삼표 가족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에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과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건설기초소재 산업의 수직계열화 완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그룹경영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역대 최고의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임직원 여러분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치·경제 환경에 따른 여러 위기상황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긴축경

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열악해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기반을 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관행과 수동적인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선진 경영전략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는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분야별 공정 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분명한 성과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 선두이자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등은 달성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만 만족과 여유보다 긴장과 치열함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존 사업영역의 공고화를 위해 공장운영 효율화, 품질선진화, 고객서비스 강화, 신제품 및 기술개발 등으로 어떠한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부문별 새로운 중장기 로드맵 수립, 경영자립도와 인적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R&D와 기술 역량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만이 지금까지의 성과와 가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로 사업부문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양시멘트와 한 가족이 된 이후 건설기초소재 산업의 수직계열화 완성이라는 대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놓았던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는 시행착오 등으로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사업 분야의 매출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계 역시 2, 3년 후에는 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수시멘트와 혼합시멘트, 드라이폴탈과 특수 콘크리트, Precast 사업 확대 등의 제품군을 더욱 다양화, 고급화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부문들은 지난 5년간의 자기 사업 부분의 성장률, 영업이익률을 잘 분석하여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력 사업 분야인 Building Material Business는 전적인 내수 사업으로 수요 증가보다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열심히 연구한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부문은 국내의 경우 99%를 일반 1종 시멘트만 생산하는데, 일본처럼 특수시멘트 등 3종 시멘트의 수요를 창출하든지, 유럽처럼 일반 OPC 대신에 수요자와 함께 혼합시멘트를 공동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맛의 상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나 대체 수요상

품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Building Material 업계가 지난 30년간 똑같은 제품만 생산한 결과, 시장이 공급 과잉상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국내 모든 동종 회사들이 이 틀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표는 시장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 회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업 전략으로 향후 2-3년 내 신상품의 수요 창출에 노력하여 공급 과잉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다양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은 여기 계신 모든 임직원이 신제품, 신시장 개척에 열정과 끈기를 갖고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삼표가 시장 변화에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자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모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고 위축돼 있을 때,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 생산과 품질경영 강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분명 한 발 그 이상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로 정의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똑똑한 제조업, 즉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하드웨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대변혁이라고까지 불리며 현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제4차 산업혁명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삼표 가족 여러분.

2017년은 희망과 기대보다 불안과 걱정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속에 우리는 모두 한 뜻으로 역량을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과감한 도전정신과 저마다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그룹의 혁신과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삼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 -



닭띠들의 정유년(丁酉年) 새해 다짐

2017년은 육십간지 중 34번째 해에 해당하는 정유년이다. 정유년의 정(丁)은 붉은색, 유(酉)는 닭을 뜻하는 한자로, 풀이하면 '붉은 닭의 해'가 된다. 이번 호에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닭띠 직원들의 새해 다짐을 소개하고자 한다. 때맞춰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정유년 새해에도 임직원의 힘찬 함성소리를 기대해본다.

삼표기초소재(주) 사업지원팀
송혜정 사원 93년생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새 아침을 울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올해는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신규사업팀
이수진 사원 93년생



삼표그룹에 입사한지 이제 두달이 되었습니다.
정유년을 맞이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도전으로
입사 첫 단추를 빈틈 없이 잘 채우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

(주)삼표 경영관리팀
윤준석 대리 82년 1월(음력 81년)생



정유년 8월, 아빠가 됩니다. 늦깎이 아빠이지만 새해에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똥이(태명)도 아무탈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하네요^^ 이 세상 모든 아빠, 엄마 힘내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삼표산업(주) 사업개발팀
공정석 과장 81년생



닭의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듯 열정과 희망으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아침과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사업개발팀 파이팅!!! 삼표 파이팅!!!

삼표피앤씨(주) 여주공장 생산팀 김래중 대리 81년생



정말 개인적으로 큰 기쁨으로 시작되는 정유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막내 동생의 예쁜 조카 출산 소식부터 3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제 결혼까지
개인적으로는 기쁜일만 생기는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시작을 잘 내딛은 만큼 2017년에는 기쁨으로만 가득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표산업(주) 회계1팀
표진혁 대리 81년생**



정유년에는 삼표인들이 원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멋진 꽃중년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1팀 팀원 모두 행복하세요~!!!

**(주)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이종석 기능 93년생**



- 1 마라톤 참가 해보기
- 2 적은 돈이라도 적금하기
- 3 가족과 함께 여행 다녀오기
- 4 가족사진 찍기

**동양시멘트(주) 경영관리팀
이은행 부장 69년생**



일근천하무난사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 가장 적합한 명언인듯합니다.
쉽 없이 새벽을 여는 장닭처럼 제일 먼저 부지런하게
한 해를 보내기를 고대해 봅니다.

**삼표레일웨이(주) 연마유지보수팀
김기환 과장 81년생**



- 집에서는 쌍둥이 육아 전념
- 회사에서는 사명감 가지고 일하기
- 모든 삼표인들이 웃으면서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화합하는 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공헌팀 신설

“어둠을 깨우고 빛을 밝히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2017년부터 커뮤니케이션 본부 내에 사회공헌팀이 신설됩니다. 사회공헌팀은 '삼표와 GREEN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CSR(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기금을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린이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금된 기금에 추가로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매칭펀드를 더해 더욱 다양한 CSR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후원 기금은 2월 중에 '그룹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보팀(이소정 사원, 02-6270-0676)으로 연락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매칭펀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의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국토를 횡단한 삼표의 뜨거운 사랑♥

인천 - 서울 - 삼척 사랑·나눔 실천 릴레이

영하 9도의 맹추위, 얼굴에 묻은 눈점점, 주르륵 흐르는 땀방울.
설 새 없는 몸놀림과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연탄과 쌀을
나르는 사람들 면면에는 뿌듯함이 깃들었다. 인천에서 서울로, 또다시
삼척으로.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며 잇달아
열린 '사랑·나눔 실천 릴레이'는 이웃을 향한 삼표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차 있었다.



01

인천

01 (왼쪽부터) ㈜삼표산업 물탈영업2팀 태인환 사원, 물탈기획팀 전형민 사원.

02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도레미콘공장 김진태 사원, 화성레미콘공장 이효빈 사원, 인천레미콘공장 이금환 사원,
송도레미콘공장 강륜·김민선 사원, 인천레미콘공장 김은주 대리, 송도레미콘 공장 박정원사원.

이날 인천에서는 인천-송도 레미콘 공장, 인천물탈공장 직원 14명과 경인교육대학교 봉사동아리 대학생 4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02

보람과 행복이 가득했던 축제의 현장

고즈넉하던 인천시 부평구 상정동에 돌연 활기가 돋았다. 하늘색 조끼를 걸치고 분주히 움직이는 열여덟 천사가 그 진원지. 이들의 손에는 검은 연탄이 들려 있었고, 입은 조끼에는 하얀 'SAMPYO 자원봉사단'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인천·송도레미콘공장과 인천물탈공장 임직원 14명, 경인교육대학교 봉사동아리 대학생 4명이 힘을 합쳐 상정동 일대 마을의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배달에 나선 것이다. 오후 두 시부터 이어진 봉사는 준비한 연탄 5,000장을 각 가정 문 앞까지 전달하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네 시간에 걸쳐 바지런히 몸을 움직였지만,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었다. 그곳은 이미 나눔의 기쁨으로 하나 된 축제의 현장,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본사 임직원과 구세군서울후생원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40여 명 규모의 봉사대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을 찾았다. 이곳 일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연탄 9,000장과 쌀 200kg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너도나도 지게를 둘러맸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가슴께까지 연탄을 한 장씩 들어 올렸다.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새 턱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결. 이럴 때는 웃음이 명약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동료의 얼굴에 연탄 그림을 그리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고, 광대까지 치고 올라간 양 입꼬리를 서로에게 선사하며 무언의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03 동료의 장난에 (좌)삼표산업 계량팀 이규훈 사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 04 (좌)삼표산업 물탈영업담당 최장현 상무가 밝은 표정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05 이날 서울에서는 연탄 9,000장과 쌀 200kg을 104마을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게 전달했다.
- 06 얼굴에 연탄재가 묻은 줄도 모를 만큼 연탄배달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 07 (왼쪽부터) (좌)삼표산업 물탈영업담당 최장현 상무, (좌)삼표산업 계량팀 이규훈 사원, (좌)삼표산업 설비2팀 한영후 사원 연탄을 배달하는 사우들의 얼굴에서 즐거움이 엿보인다.

서울



04



05



06



07

서울에서의 봉사는 구세군서울후생원 초등학생들이 참여했기에 더욱더 뜻깊었다. 구세군서울후생원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삼표자원봉사단이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정기 봉사를 펼치는 보육기관이다.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다짐이 사우들의 마음을 보람과 행복으로 가득 물들인 날이었다.



01

보다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꿈꾸다

인천과 서울에서의 '봉사 바통'은 다음날인 17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이어받았다. 삼표동양시멘트공장 임직원 40명이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도계고등학교 학생 11명과 함께 삼척시 오분동으로 향하는 것이다. 주황색 작업복 위에 삼표자원봉사단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은 연탄을 두 장씩 들고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줄지어 들어섰다. 학생들이 행여 미끄러질세라 사우들은 호미로 길가의 얼음을 손수 제거했고 고마운 배려에 힘입어 봉사자들은 무려 5,000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사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연탄 선물을 받은 이웃이 전한 물 한 잔에 쌓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동네 주민과 사우,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인천, 서울, 삼척을

삼척



02



03



04

황으로 이으며 퍼져나간 사랑·나눔 실천 릴레이는 겨울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삼표 임직원들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이틀에 걸쳐 연탄 19,000장과 쌀 200kg을 이웃에 전달했다. 단순한 생활용품 지원 수준을 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필수품을 지역 사회와 나눈 것이다. 이번 행사는 ‘같이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천, 서울, 삼척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자라나는 미래 인재들에게 ‘함께 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행복’을 깨닫게 해준 것. 더욱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꿈꾸는 우리 그룹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01 연탄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송도레미콘공장 김민선 사원
- 02 인천-서울에 이어 삼척에서는 삼표동양시멘트㈜ 임직원 40명과 도계고등학교 학생 11명이 연탄배달에 나섰다.
- 03 씩씩하게 연탄을 배달하는 구세군서울후생원 아이들 덕분에 서울 연탄배달봉사에서는 웃음꽃이 많이 피었다.
- 04 삼표동양시멘트㈜ 공장개선팀 이수동 부장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이날 삼척에서 배달한 연탄 5,000장을 포함하여 총 19,000장의 연탄과 쌀 200kg이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었다.
- 05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삼표산업 설비2팀 한영후 사원(왼쪽)과 ㈜삼표 시멘트5M팀 이지윤 사원

‘삼표표(標) 봉사’는 현재진행형

사실 우리 그룹의 봉사 여정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83년, 정인옥학술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200여명의 중·고·대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더 큰 나눔을 선사하려 한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전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올바른 행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프로그램을 반영해 ‘삼표표(標) 봉사’를 정착하려 준비 중이다. 어느새 국내 기초소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러 노력하는 삼표의 ‘뜨거운 이웃 사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05

친해지길 바랍니다

한국인은 가장 오래 일한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평균(1,770시간)보다 무려 354시간이나 더 길다. 독일(1,371시간)에 비하면 1년 중 4개월을 더 일한다.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다는 뜻이고 직장 동료와 철저히 '남'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럽지만 어색한 채로 2천여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불편하다. 장막을 거두고 얼음을 깨는 묘수는 없을까?

선을 넘지 마라

잠깐! 회사의 모든 인간관계는 일을 통해 맺어진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직급이 있다. 일과 직급을 넘어서 성급한 친밀감은 자칫하면 독이 되고 나를 쏘는 화살이 된다. 예의와 존중을 무시하면 건방진 사람이 되고 실력이 아닌 '관계'로만 실타래를 풀려는 의문스런 사람이 된다. 회사 일은 협업의 연속이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관계'를 소홀히 하면 골인 지점을 눈앞에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인간관계는 시간과 정성을 통해 완성된다. 과도한 목적, 계산된 방법, 성급한 접근을 시도하면 상대는 그만큼 뒤로 물러선다.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판단하기에 적당한 시기와 깊이가 필요하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려움)의 줄타기 말이다.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정보도, 의사소통도 차단된다. 경험이 많은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 혹은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넓은 범주의 '관계'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깊이 못지않게 영역 넓히기에 힘써야 한다.





영역 넓히기

명확하게 표현해라 | 크고 바른 목소리로 인사하고 상대의 사소한 ‘농’에도 크게 반응해라. ‘대박!’, ‘정말로요?’, ‘그래서요?’ 같은 가벼운 추임새와 감탄사 몇 개로도 상대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 사과도 그 자리에서 즉시 표현해라. 잘못이 아닌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관찰로 시작해라 | “과장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는 값싼 아부다. “과장님 오늘 셔츠 색깔 정말 좋아요. 바지와도 잘 어울리고, 못 보던 건데 새로 사신 거죠?” 구체적이면 진심으로 들린다. 관찰은 관심이 되고 호감으로 다가오고 친근함으로 발전한다.

질문으로 불러 세워라 | “대리님, 그런데 왜 작년 재고는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낀다. 특히 후배들의 똑똑한 질문은 상사의 경험과 지식을 쏟아내는 더없이 좋은 마중물이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 업무적인 궁금증은 ‘관계’에 기름칠을 해준다. 단, 감탄의 추임새만큼은 잊지 마라.

깊이 파기

글자를 활용해라 | 퇴근길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오늘 과장님 프레젠테이션 최고였습니다” 눈앞에서 하는 감탄, 칭찬보다 퇴근길 올리는 문자는 잔잔한 여운이 된다. 몇 번의 숙고 끝에 올리는 제언도 말보다는 글자에 담는 것이 좋다. 말은 전달의 방법, 분위기에 따라 그 의도가 변색되지만 이메일, 문자 등 글자에 담는 내용은 여간해서는 오해를 사지 않는다. 단, 둘만이 공유해야 한다.

공감, 격정, 기쁨을 나눠라 | 좋은 일에 아낌없이 기뻐해 주는 일도 쉽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은 굳은 약속 없이도 같은 편이 된다. 경사보다는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고 전무님 자녀의 결혼식보다는 퇴직한 부장님의 송별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전무님의 눈에만 들것인지, 송별식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따뜻함’에 더해 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자기계발 모임을 만들어라 | 마음에 드는 상사나 동료들 발견했다면? 진한 술자리? 오 No! 술자리는 대범해지거나 거칠어지기 쉽다. 그래서 실수와 좋지 않은 모습을 남긴다. 운동이든 독서모임이든 전시회, 영화 토론이든 상대의 생각, 관점,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라. 서로를 배우는 기회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며 이는 건전한 경쟁심으로 발전한다. 결국은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한다.

회사에서 상사, 동료, 후배 등과 너무 가까우면 태만해지고 정당한 거절조차 힘들어진다. 부당함이 친밀감으로 포장된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사이가 너무 멀면 침묵이 흐르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흐름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귀한 손님에게 설익은 밥을 대접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냥 문밖에 세워두어서도 안 된다. 중심을 잡는 일은 늘 어렵다.



(왼쪽부터) 생산팀 김진모 과장, 생산팀 김재근 대리, 정비팀 김정주 과장, 생산팀 최수빈 과장,
생산팀 장병인 과장, 관리팀 김규선 대리, 하동호 상무, 관리팀 이정오 부장, 관리팀 오준석 대리



버려진 폐기물에서 유용한 'Fe(철) 기물' 수확하다

(주)네비엔 단양공장

(주)네비엔 단양공장을 둘러보며 김춘수 시인의 <꽃>이 절로 떠올랐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시인의 부름에 '꽃'으로 변했듯, 자칫 의미 없이 버려질 수 있었던 '제강 슬래그'가 이곳에 온 뒤 쓸모 있는 '선철'로 탈바꿈했으므로.



남다른 해안으로 일궈낸 공장

제철소에서 강철을 만들 때는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한다. 그중 하나가 슬래그다. 쇳물에서 황(S)을 제거하며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인데, 제철소에서는 이를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한다. 그런데 이 슬래그에는 미량의 철(Fe) 성분이 포함돼 있다.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주)네비엔 단양공장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제철소에서 슬래그를 가져와 선철을 생산한 뒤, 이를 제철소에 다시 공급한다. 선철 가공 공정을 설명하는 단양사업소 하동호 상무의 목소리에는 강한 긍지가 배어 있었다.



“제철소에서 가져온 슬래그를 자연 건조한 뒤 설비에 투입합니다. 그 후 입도 선별, 건조, 파쇄, 자력 선별기로 철 성분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선철을 생산하죠. 되도록 많은 철 성분을 회수해 높은 순도의 선철을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고품질의 선철을 생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슬래그에서 철 성분을 선별하고 나면 분 슬래그가 남는다. 전체 슬래그의 대부분을 차지하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고 묻자 하동호 상무가 빙그레 미소 짓는다. “그래서 단양에 자리를 잡았죠” 충청북도 단양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석 채굴지이다. 당연히 시멘트 공장이 다수 모여 있다. 그런데 분 슬래그는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다. (주)네비엔 단양공장은 시멘트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홍보했다. 작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석회석 대체재로 제품 인증도 받았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서의 처리도 수월해졌다. 선철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려한 남다른 해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03



04

- 01 생산팀 장병인 과장과 정비팀 김정주 과장이 현장에서 생산공정상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02 생산팀 김재근 대리가 분슬래그장에서 시멘트사 처리 분슬래그를 상차하고 있다. 이 분슬래그는 시멘트사로 처리되어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된다.
- 03 생산팀 장두영 사원이 운전실에서 생산설비를 운전하고 있다. 운전실은 단양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제어하는 곳으로,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04 ㈜네비엔 단양공장의 전경
- 05 슬래그에서 파쇄 분쇄 건조 자력선별 과정을 거쳐 얻은 선철로, 정제 과정을 거쳐 제품화 된다.

새로운 비전으로 그려 나가는 '성공 제2막'

(주)네비엔 단양공장은 환경 보호를 위해 조성 단계부터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슬래그 파쇄 설비를 실내로 들어 비산 먼지를 최소화했고, 세류장은 보온을 해 겨울에도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준공 이후에도 원료장과 분 슬래그장 밀폐 공사를 진행하고, 비산 먼지는 여과 집진기와 사일로를 설치해 포집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환경친화적 공장의 표준'으로 우뚝 섰다.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환경 무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현장 직원들을 지역에서 채용했다. "지금까지 그 흔한 반대 현수막 한 장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하동호 상무의 얼굴에 흐뭇함이 깃들었다.

지역 주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주)네비엔 단양공장은 2013년 12월, 준공 이후 연간 최대 생산량을 확대하면서도 생산 공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한편으로는 설비를 꾸준히 개조·보완해 원가 절감에 힘썼으며, 작업 시 안전 통로인 워크 웨이(Walk Way)를 설치하고 각 구동체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현장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3월, 그룹 내 환경안전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전 임직원이 뚝뚝 뭉쳐 성공 가도를 달려온 (주)네비엔 단양공장은 정유년을 맞아 보다 밝은 청사진을 꿈꾸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비 절감 TFT를 통해 원가 절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삼표산업 기술연구소와 함께 분 슬래그를 별도의 용도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그리고 최근 증축한 분 슬래그장 여유 공간을 활용해 고철더스트정제사업에도 진출할 계획. 앞으로 (주)네비엔 단양공장이 선보일 '성공 제2막'이 사뭇 기대된다.

Mini Interview

단양사업소 하동호 상무



Q. 네비엔 단양공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년 4월에 처음으로 공장 시험 가동을 했는데요. 꼼꼼한 준비로 전체 설비가 완벽하게 가동됐고, 무엇보다 예상치를 웃도는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박영동 대표님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TFT를 구성해 설비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토론, 생산량 증대 및 품질 향상 방안을 꾸준히 논의했고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이렇듯 (주)네비엔 전체 임직원들이 합심한 덕분에 공장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중국발 저가 철강 물량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신가요?

2015년 최저점을 찍은 고철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철강 경기 침체가 지속되리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장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 슬래그를 활용한 제품 개발, 고철더스트정제사업, 시멘트 공장에 판매할 물질 및 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흔들림 없는 (주)네비엔 단양공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삼표동양시멘트(주) 25년 근속 주인공을 만나다

배동환·이연재 상무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30일, 삼표동양시멘트(주)는 입사 25주년에 해당하는 한승룡·이연재·배동환 상무에게 장기근속 포상을 수여했다. 신년 호 <삼표愛>에서는 장기근속 포상을 받은 세 명의 상무 중 배동환, 이연재 두 명의 상무를 직접 만나보았다. 25년을 회사와 함께한 두 상무에게 삼표동양시멘트(주)란 어떤 의미일까. 나이도, 분야도 다르지만 '25주년 근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상무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아래 인터뷰는 두 상무님의 개별 인터뷰를 대담형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두 분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선 장기근속 포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배동환 상무(이하 배) 입사한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같은 길을 걸어온 선후배 여러분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연재 상무(이하 이) 한승룡, 배동환 상무는 인생의 반을 함께 한 소중한 사람들이자 서로에게 늘 든든한 힘이 되는 동료들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함께 달려온 두 동료와 함께 포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올해로 25살이 되었는데, 제 나이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회사와 함께하셨다고 하니 존경스럽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두 분이 신입사원이셨을 때의 삼표동양시멘트(주)와 현재를 비교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 외부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장 호황이던 시절에 입사했는데, 당시 최고의 회사로 평가받던 자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기업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시멘트산업 자체가 보수적인 제조업이라 변화가 느린 편이지요. 지금이 바로 시장변화에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삼표그룹과의 만남이 바로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동환
상무



삼표동양시멘트(주) 관리지원부문 운영기획담당 배동환 상무(1991년 12월 1일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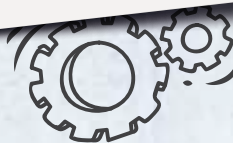
두 분 다 보수적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업 분위기는 아주 선진적이고 가족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삼표동양시멘트(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배 지역 향토기업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삼표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이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새로운 그룹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겠지요.

이 저는 이미 삼표그룹과 삼표동양시멘트(주)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표기초소재(주)와 삼표동양시멘트(주) 영업팀의 전체 워크숍에서 소속의 구분 없이 전 영업사원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더군요.



삼표동양시멘트(주) 영업부문 특수영업담당 이연재 상무(1990년 12월 11일 입사)



이연재 상무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나고 자란 삼척 토박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삼척'은 제게 있어 고향 이상의 의미인데요. 특히 오랜 기간 삼척에 계신 배동한 상무님께서도 '삼척'은 남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배 저는 서울에서 35년을 살다가 지난 2001년부터 삼척에서 근무했습니다. 벌써 16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서울이 삼척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 집니다. 가끔 불일이 있어 서울에 갈 때면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늘 타고 다녔던 시내버스가 이제는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낯설어진 겁니다. 지금은 삼척이 제2의 고향이 된 듯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요.

이 2002년부터 4년간 강원지사장으로서 영동지역의 일반시멘트营业을 담당했는데 발령 첫해에 태풍 루사가, 이듬해에 태풍 매미가 영동 지역을 덮쳤습니다. 하루 평균 900㎜ 이상의 비가 내렸으니 그 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반시멘트 영업의 지역 단위 책임자였는데, 길이 끊어지고 공장설비가 엉망이 되어 망연자실한 고객을 위해 생수와 빵을 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수마가 지나간 끊어진 길을 30분쯤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길을 뚫고 찾아온 저와 직원들의 정성에 감동받은 사장님께서서는 이후로는 저희와 거의 단독에 가까운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배 입사 후 서울에서 9년을 근무한 뒤 삼척공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지요. 남들보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생산기획 업무에서 특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해 왔는데, 특히 2012년 전력 대란(Black-Out) 당시 부하관리 운영을 통해 100억대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짜릿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처럼 삼표동양시멘트(주)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배 '열정'과 '끈기'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논어에 "남이 나를 알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면 남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의미지요. 조바심을 갖지 말고 꾸준히 실력을 향상해가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이** 저는 동료나 고객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연재 상무님께서서는 후배들에게 '건강을 잃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상무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지요.

이 주중에는 주로 헬스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취미로는 등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100대 명산 중 60개 이상의 산을 등반했습니다. 한창때는 10시간 씩 산을 오르기도 했지요. 요즘은 퇴직하고 오를 산이 없을까 봐 꼭꼭 아껴두고 있습니다. (웃음)

운동을 잘 못하는 저는 100대 명산 중 1곳이라도 가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 번 찾아보아겠습니다. 끝으로 정유년 새해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배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올해 사업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개인적인 일이지만 꾸준히 운동해야겠습니다. 이연재 상무의 말씀처럼 몸이 건강해져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저 역시 업무적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영업팀이나 건설수주팀의 추가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으나 여러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새해의 목표는 역시 건강, 그리고 사업 목표 달성인데요. 정유년 새해에는 두 분 상무님들이 소망하시는 목표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화는 [♡]사랑을 싣고

입사한 지 한달 만에 사수가 회사를 떠났다.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었던 그때의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준 한 사람이 있다. 업무 중 모르는 내용은 항상 키다리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매 통화 끝에 전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면에는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넘쳐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진심을 전달하는 순간. 나의 키다리 아저씨 영업1팀 김보영 과장님께, 오늘은 제가 씁니다.



삼표기초소재(주)
영업1팀 김보영 과장



삼표동양시멘트(주)
남서영업소 남한나 사원

김보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한나입니다.

과장님께 처음 전화를 드린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삼표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은 저에게 매우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사수가 회사를 떠나게 되어 걱정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잘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았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 과장님께 전화를 걸어가며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많고 또 여기저기 다른 팀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바쁘실 텐데 단 한 번의 싫은 내색 없이 매번 자세히 설명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요새는 나름대로 통화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도 매일 3통 이상씩 전화를 드리게 되네요. 하지만 더 발전해서 앞으로는 하루 2통씩으로 줄이고, 올 하반기가 지나면 이틀에 한 통으로 줄여보겠습니다. 😊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과장님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르쳐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 남한나 올림 -

신년 호 <삼표愛>에서는 특별히 삼표기초소재(주)와 삼표동양시멘트(주) 영업부분의 워크숍 현장을 찾았다.
 남서영업소의 남한나 사원과 영업1팀의 김보영 과장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
 그 설레는 현장을 찾아가보자.



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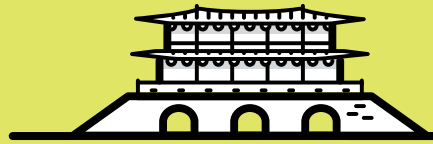
모르는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과장님 도넛맛이
 어떨까요??



광화문 일대,



현대 직장인들, 특히 팀 막내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의 하나는 '점심 뭐 먹을래?'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삼표 그룹 본사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맛집 다섯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섯 곳 모두 필자가 직접 다녀온 곳으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소개되었으며,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음식의 질도 뛰어나다는 '빚 구르망' 리스트에 선출된 음식점 또한 포함되어 있다.

북막골

마늘로스팅보쌈, 구석기 갈비

삼청동 한국극용연수원을 지나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고즈넉한 한옥이 있다. 원래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한 맛집이지만 얼마 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전파를 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평일에 방문한 북막골은 회사와 꽤 떨어진 곳에 있어 대기 줄이 길지 않았으나 식사를 마치고 나온 12시 30분경에는 만석이었으니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북막골의 베스트 메뉴인 마늘로스팅보쌈은 식감이 매우 부드러운데 보쌈만 먹는다면 자칫 느끼할 수 있다. 하지만 간 이 배어있는 채소와 함께 먹는다면 시큼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비주얼로 압도하는 구석기 갈비는 그 이름에 걸맞게 큼직한 갈빗대에 두툼한 고기가 붙어있다. 투박한 겉모습이지만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 먹으면 생각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놀랄 것이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 방문했을 때 두 메뉴를 먹는다면 모두 '中'자 크기를 추천한다. 두 메뉴 모두 고기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다.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9시 30분 (주말 브레이크 타임, 오후 3시 ~ 4시)
주요메뉴 마늘로스팅보쌈 (중) 28,000원, 구석기 갈비 (중) 41,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0-2
전화 02-730-0980



이문 설령탕

설령탕, 도가니탕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100선'에 선정된 이문 설령탕은 112년 명맥을 이어오는 진한 육수와 두툼한 고기로 유명하다. 필자가 자주 가는 곳 중 하나인 이곳은 좌석도 많아 다른 음식점들보다 대기 시간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본'과 '특' 사이즈로 나뉜 설령탕과 도가니탕을 기호에 맞게 고르면 된다. 소금과 후추를 많이 넣지 않아도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깍두기와 김치가 간을 맞춰준다. 설령탕은 토렴한 후 고기를 얹어서, 도가니탕은 밥과 탕이 따로 나온다. 이곳 육수는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삼삼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 특이한 점은 탕 속에 소의 비장인 만나(혹은 만하)라는 것이 있는데 식감은 부드러우나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필자는 가끔 양젓살만 넣어달라고 한다.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에 따뜻한 설령탕 한 그릇으로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곳이다.

영업시간 오전 8시 ~ 오후 9시 (월 ~ 토), 오전 8시 ~ 오후 8시 (일), 명절 휴무
주요메뉴 설령탕 8,000원 (특 10,000원), 도가니탕 11,000원 (특 13,000원), 수육 28,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8번지
전화 02-733-6526



어디까지 _____ 맛봤니?



황생가 칼국수

사골칼국수, 왕만두

서울 미쉐린 가이드의 '빔 구르망'에 선정된 황생가 칼국수. 삼청동 초입에 있는 이곳은 조금만 늦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유명한 맛집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테이블 위에 갓 빚은 왕만두가 층층이 쌓여있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필자는 기대가 큰 곳 중 하나였다. 한우로 우려낸 진한 사골 국물은 느끼하지 않고 면 위에 올린 채소 덕에 살짝 매콤한 맛이 나서 해장에도 좋다. 필자는 평소 칼국수와 왕만두를 함께 주문하는데 왕만두가 먼저 나온다. 큼직한 만두피 안에 속이 꽉 찬 왕만두를 약간 달콤한 간장에 찍어 먹고 있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나온다. 별다른 내용물 없이 면, 파, 버섯 정도만 들어가지만, 한우에서 우려낸 사골 국물이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살려준다. 찬 바람이 불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음식점!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9시 30분

주요메뉴 사골 칼국수 9,000원, 왕만두 9,000원, 왕만두국 9,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84

전화 02-739-6334



삼청동 수제비

수제비

삼청동 수제비는 삼청동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보인다. 단층 건물이지만 내부는 널찍하다. 삼청동의 터줏대감으로 오랜 시간 같은 곳을 지켜온 이곳은 198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내부는 80년대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어 옛 향수를 자극한다. 주메뉴는 역시 수제비이지만 웅심이와 감자전 등도 이곳을 다시 찾게 만드는 요소이다. 밀가루 음식이지만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다. 걸쭉한 국물 역시 추위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되기 전에도 모범 음식점으로 이름을 날린 곳이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대기해야 하니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다. 길 건너 전용 주차장이 있어 편하다. 수제비는 1인분, 웅심이는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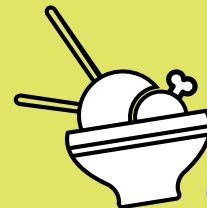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9시

주요메뉴 수제비 8,000원, 찹쌀새알웅심이 (1인분) 11,000원,

감자전 8,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02

전화 02-735-2965



고려삼계탕

삼계탕

원래 점심을 많이 먹지 않는 필자가 삼표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남기지 않고 굶어먹은(?) 음식이 바로 삼계탕이다. 최근에는 AI 때문에 닭 요리 음식점에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한때 회사 주변 삼계탕집들은 대기 없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삼계탕은 귀중한 음식이었다.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난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지만 바깥쪽에 커다란 간판이 설치되어있어 찾기는 쉽다. 고려삼계탕은 삼계탕을 최초로 상업적으로 판매한 곳이다. 복날의 영양식으로만 생각했던 삼계탕을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이 1960년. 그뿐만 아니라 대추나 찹쌀 등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X자로 꼬는 조리법도 처음 개발했다고 한다.

고려삼계탕은 시청 근처의 본점과 세종문화회관 옆 광화문점, 단 두 곳에만 위치하고 있다. 솔직히 다른 삼계탕집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고기만 퍽퍽하지 않으면 먹음만하다는 것이 삼계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전통이 있다고는 하나 점심 한 끼 먹기 위한 금액으로는 비싼 편. 게다가 매장이 크다 하더라도 조금만 늦게 가도 한참을 기다리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다녀오기에는 조금 빠듯하다. 사람이 바글바글하니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매장은 2층까지 있으며 홀과 온돌방에서 식사할 수 있다.

영업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9시 30분 (구정, 추석 당일 휴무)

주요메뉴 삼계탕 15,000원, 오골계탕 21,000원, 전복삼계탕 21,000원 (+6,000원 산삼 추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4

전화 02-737-1888, 1889

맑은 하늘처럼 맑은 공장, 맑은 우리

(주)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 품질팀 김명섭 대리
(왼쪽부터) 장동우 대리, 김명섭 대리, 조운진 사원

2017 정유년을 맞이하여 올해 9월 중 가장 날씨가 좋았던 날,
항상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일들만 있기를 소망하며 촬영했습니다.

올 한해 '고객 품질 Claim 최소화'라는 목표를 통해
공장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하여
목표대비 월등한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상

셀카 특집 삼표그룹과 함께한 순간

셀카 특집, 삼표그룹과 함께한 순간

사무실 현관, 공장 사일로, 공장 입구, 레미콘 믹서트럭 등 생활
속에서 삼표그룹 로고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삼표 안에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동료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가치를 바라며
<삼표愛> 신년 호에서는 삼표그룹의 로고가 노출된 곳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신대원 골재예산품질팀 최석순 차장

주말에 집(남양주시 오남)에 와보니 아파트 보수용으로 사용하고
경비실 앞에 삼표물탈을 준비해두었네요.

이제는 '삼표'라는 이름을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3시간 30분의 거리를 달려 근무지로 달려갑니다^^!



금상



우리가 삼표예요!

(주)삼표산업 회계기획팀 최승민 사원

삼표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은 바로 사람입니다.
삼표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레미콘 공장운영팀 막내^^

(주)삼표산업 레미콘공장운영팀 박종필 사원

사원증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처음 찍어보는 셀카네요.
좋은 부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표동양시멘트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서

(주)삼표 법무팀 안순협 선임사원

(왼쪽부터) 김혜림 과장, 김근갑 팀장, 안순협 선임사원

법무팀 식구들과 삼척공장 6, 7호 킬른 프리히터(예열기)에서
설비 견학과 업무 협조를 마치고,
사일로 및 삼척항을 등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강한 삼표 힘센 동양

삼표기초소재(주) 영업1팀 장수민 사원

2017년 1월 6~7일, TYC가 다 함께 모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워크숍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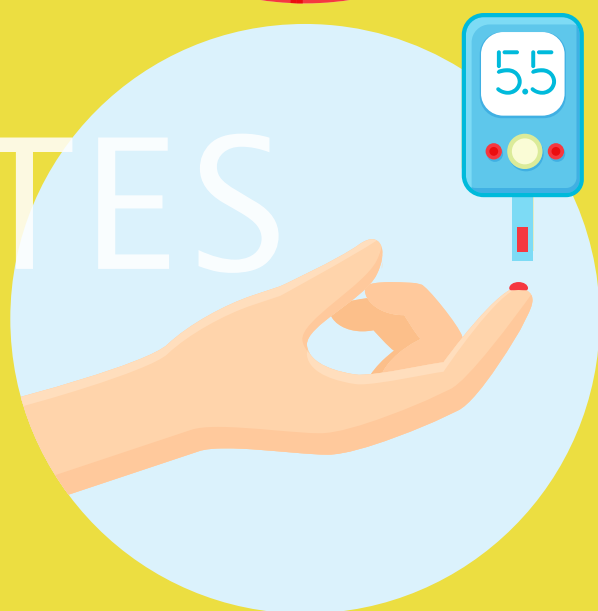
당뇨, 원인을 알면 쉽다

아마도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은 완치할 수 없다”, “당뇨병은 반드시 합병증이 온다”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36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내린 결론은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다”, “합병증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당뇨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실천해야만 한다.

DIABETES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상인과 같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만 한다.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혈당의 원인인 음식량을 조절하고 적게 먹는 것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나뭇잎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그 나뭇잎을 따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뭇잎이 죽어가는 원인은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나무를 살릴 수 없다. 당뇨병일 때 혈당치가 높은 것은 마치 나뭇잎이 누렇게 된 것과 같다.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인슐린 부족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치료 핵심은 인슐린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단순히 혈당조절에만 맞추어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의 파괴는 다른 병에서는 보이지 않고 당뇨병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정한 원인은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감소하거나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나 힘,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에 쓰이도록 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혹은 아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에너지나 몸에 쓰이지 않고 혈액에 남아 있어 혈중 포도당치가 상승하게 된다. 또 혈중 포도당이 높으면 몸의 여러 기관에 나쁜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소변을 배출한다. 따라서 소변에 포도당이 나오는 ‘당뇨’가 되는 것이다.



당뇨병 합병증, 온몸에 온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마 ‘합병증’일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각 세포에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영양실조가 오는 병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온몸의 각 조직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 소실이 온다. 이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와 중추신경계의 동맥이 막혀서 중풍이 잘 오고, 망막의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시각장애인이 되는 망막증, 잇몸질환이 심하게 진행돼 치아가 다 빠지는 등의 치주질환, 팔다리의 말초신경 파괴가 오는 신경합병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장의 모세혈관이 파괴되는 신부전증, 몸의 여러 자율신경계에 기능 이상과 파괴로 오는 자율신경장애, 발기부전, 다리나 발의 심한 괴저로 족부 절단을 가져오는 족부병변 등 실제로 각종 장기가 파괴되는 합병증으로 고생한다.

당뇨병은 각종 장기가 파괴되는
합병증으로 고생한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을 정상화하면
당뇨병을 치료 할 수 있다.

인슐린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야한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의 하나가 ‘먹는 약’이다. 먹기 쉽고, 약간의 혈당치를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지만 먹는 약으로 당뇨병을 완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약을 먹으면 일 년에 4%씩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약 25년이 되면 100% 인슐린 분비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당뇨병 초기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일 년에 4%씩 줄어드는 인슐린을 하루 치료 계산하면 0.01%가 되므로 파괴 정도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몇 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확실한 치료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당뇨병의 원인인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을 정상화하면 된다. ‘인공췌장기’인 ‘인슐린펌프’ 치료가 방법이다. 대부분 인공췌장기라고 하면 수술을 통해 우리 몸속에 인공장기를 집어넣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슐린펌프는 간단한 방법으로 주머니나 옷에 착용하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 인슐린을 넣어주는, 55g 달걀 1개 정도 무게의 가벼운 장치다. 인슐린펌프 치료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혈당조절이 잘 된다. 둘째, 잘 먹으면서도 혈당조절이 잘되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한다. 셋째, 췌장 기능이 회복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다. 당뇨병 치료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금물, 올바른 치료법을 마련해서 행복한 삶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보건소가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 보건소 100% 이용하기

‘보건소’하면 예방접종이나 진료 프로그램 등의 낙후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보건소가 확 달라졌다. 과거 예방사업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료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구강 관리

각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영·유아, 학생 등에게 정기 구강검진을 제공하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시행한다. 노인 구강 의료서비스에는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치아의 이동성이 없는 경우 가능) 등이 있다.

예방 검진 및 예방 접종

❶ 예방 검진

지방간 검사1종~9종에 따라 3,220원~1만6,080원, 고지혈증 1만1,180원, 신장 기능 검사 4,200원, 혈당 검사 1,300원, 소변 검사 2,120원, 빈혈 검사(2종) 2,090원, 빈혈 검사(CBC) 5,560원, 혈액형 검사 3,230원, A형간염 검사 2만9,440원,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5,530원, C형간염 검사 1만5,150원이다.

보건소 가기 전 잠깐!



보건소는 각 시, 군, 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진료비,
진료 서비스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년 새로 시행하거나 기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사전에
파악해두자.



각 보건소 의료서비스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자가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보건소의 진료비용은 500원~2,000원
사이이며 의료보호 환자나 65세 이상은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진료 예약이나 진료 내용 조회 등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을 이용하면 된다.

② 예방 접종

영·유아는 BCG,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Polio(소아마비),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예방 접종이 무료이다.

인플루엔자(독감)는 만65세 이상, 장애인(1~3급, 만3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만3세 이상), 국가유공자(본인)는 10월~11월에 무료로 접종하며 폐렴구균은 만 65세 이상이면 연중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임산·출산·육아 진료 서비스

① 산전 검사와 엽산제, 철분제 제공

출산 전 빈혈, B형 간염, 성병 등의 혈액 검사와 체중, 혈압, 단백뇨 등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신 8~12주 사이 풍진 검사와 16~20주 사이 태아 기형아 검사 또한 무료이다. 35세 이상 임신부는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하며,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철분제를 제공한다.

② 초음파 검사와 임신성 당뇨 검사

임산부를 위한 초음파 검사(임신 16주~28주, 총 2회), 당뇨병 검사(24~28주 사이)가 무료이다.

③ 무료 출산교실 운영

보건소에서는 무료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제조, 라마즈 분만법, 산후관리 교육·실습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보통 4주 과정이다. 임신 20주부터 교육받으며 선착순으로 신청받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노인 의료 서비스

추천 프로그램은 치매조기검진이 있다. 60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질 의응답 형식의 치매선별검사(MMSE-DS)지를 통해 검사한다. 검진결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관내 협력병원에서 치매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금연 프로그램

기본적인 3단계의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번째 금연 준비단계에서는 등록과 면담을 통해 기초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 등을 평가하고 금연 교육과 금연 보조제가 제공된다. 두 번째 금연 실천단계는 방문 상담과 금연 교육, 금연 보조제 제공, 금단 증상 상담이 이뤄진다. 세 번째 금연 유지단계는 6개월까지 지속해서 금연 확인(전화, 방문, 이메일, 문자 상담)과 격려 전화, 6개월 이상 금연 성공 시에 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덴마크 휘게(Hygge)라이프

휘게(Hygge), 생소한 덴마크 단어 하나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휘게는 특별한 용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하는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BBC방송 등 해외언론이 소개하면서 휘게 열풍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경영 전략가, 트렌드 분석 전문가들은 '휘게'를 2017년의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으며 영국 사전출판사 「콜린스」도 올해의 단어로 '휘게'를 선정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를 만나다

덴마크는 가장 행복한 나라다. 2016년 국제연합(UN)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지수 높은 나라 1위에 덴마크가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는 38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여러 북유럽 국가 중 특히 덴마크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덴마크 행복 연구소장이자 <휘게 라이프>의 저자인 마이크 비킹은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며 그 비결로 '휘게'를 꼽았다. 휘게를 직역하면 영어의 코지니스(Cosiness, 아늑함)에 가깝지만 실제 의미는 더 넓게 쓰인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단란함, 편안한 분위기를 지칭한다. 휘게는 명사와 동사로 동시에 쓰이며 형용사는 휘겔리(Hygge)다. 덴마크 사람들은 '가족과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하며 편안함을 느낄 때', '아늑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양초를

휘겔리한
삶을 위한
십계명

- 1 **분위기**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
- 2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라. 휴대전화를 끈다.
- 3 **달콤한 음식** 커피, 초콜릿, 쿠키, 케이크, 사탕.
더 주세요!
- 4 **평등** '나'보다는 '우리'. 원가를 함께하거나
TV를 함께 시청한다.
- 5 **감사**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도
모른다.
- 6 **조화**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든 뽐낼 필요가
없다.
- 7 **편안함** 휴식을 취한다.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8 **휴전** 감정 소모는 그만. 정치에 관해서라면
나중에 얘기한다.
- 9 **화목** 추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다져보자.
- 10 **보금자리**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오갈 때 느끼는 행복감' 등을 휘게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휘겔리한 시간 보내세요”, “만나서 진심으로 휘게합니다”, “정말 휘겔리한 거실이군요”와 같이 ‘휘게’와 ‘휘겔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한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뜻하기도 하는 휘게는 ‘새것’보다는 ‘오래된 것’,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명품 롤렉스 시계보다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박한 가족 시계, 컴퓨터 게임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보드 게임, 마트에서 산 비스킷보다는 서투러도 집에서 직접 만든 비스킷을 더욱 ‘휘게’하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휘게와 행복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휘게는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도 ‘휘게’할 수 있을까?

마이크 비킹은 ‘휘게 열풍’의 원인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으로만 사회 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이 역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덴마크는 물가가 높고 날씨도 곳지만 언제나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삶의 행복의 기준을 ‘관계’, ‘따스함’, ‘친밀함’, ‘평등함’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마이크 비킹은 “한국은 행복 연구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나라”라면서 “단기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뤘지만 부를 축적한 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독특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29위인데 행복지수는 58위에 불과하다. 한국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 분위기’를 꼽은 마이크 비킹은 “한국인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사회가 기대하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자살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데도 항우울제 처방률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정신적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행복연구소에 가장 많은 문의를 해오는 나라 중 한 곳이 한국이라고 한다. “소득도 어느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오른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과 개인의 삶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휘게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 즉 가족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좋은 분위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휘게를 알면 세상 어디에서라도 누구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 출처_ <휘게 라이프(Hygge Life),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마이크 비킹, 위즈덤 하우스



강원도로 떠나는 겨울 여행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과 강릉

겨울이아말로 강원도 여행의 최적기다. 한국의 알프스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의 설경은 눈이 즐겁고 강릉 테라로사 공장의 커피 향과 주문진 겨울바다는 오감을 자극한다. 지도상으로는 동쪽 끝이지만,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새로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40분 이내에 도착할 만큼 심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 설경이 아름다운 대관령 양떼목장과 푸른 빛의 겨울바다가 매력적인 강릉, 어디를 선택하든 후회 없는 겨울 여행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알프스,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

봄부터 가을까지는 풀밭에서 유유자적 풀을 뜯는 양떼를 만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양을 방목하지 않고 축사에서 관리한다. 그런데도 겨울 여행객이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겨울이면 대관령 양떼목장이 눈 덮인 겨울왕국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평창군의 대부분은 높이가 700m 넘는 고지대다. 대관령 양떼목장은 이보다 높은 해발 850~920m의 고도에 서쪽 산과 동쪽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동해로부터 불어오는 차고 습한 기류가 많은 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겨우내 초원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양떼목장을 제대로 느끼고 즐기고 싶다면 1.2km 길이의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아보면 된다. 영화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배경 중 하나였던 신하균과 김희선이 한겨울 눈보라를 피했던 움막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920m 정상에 오르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설국의 풍경에 반해 돌아가기가 싫어 질 즈음 축사가 나타난다. 여기저기서 양들이 먹이를 달라고 야단법석이다. 직접 건초도 주고 양들과 놀며 양떼목장의 하루 코스를 마무리한다.



01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에 있는 영화 <화성으로 간 사나이> 세트장 일부.

02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은 겨울이면 양들을 축사에서 관리한다. 사진은 축사에서 쉬고 있는 양떼.



03



03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강릉 바다.

04



05



04 테라로사 공장에서는 갓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05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하는 영진 해변.

커피와 바다의 도시, 강릉

트렌디한 겨울 여행을 꿈꾼다면 강릉 역시 추천할만하다. 커피 좀 먹어봤다는 사람이라면 빨간 벽돌이 매력적인 테라로사 커피공장을 추천한다. 커피 공급을 위해 세워진 공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공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공간까지 생겨났다.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빨간 벽돌을 지나 커피나무를 키우는 온실을 통과하면 비로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장 내부에 이르게 된다. 온실을 지나기 전 창문 사이로 빵을 굽는 모습이 보이고 후각을 자극하는 커피 향이 더해지면 커피를 맛보기도 전에 만족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시골 정취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 여기에 천연 발효하여 매일 굽는 빵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커피나무를 키우는 온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독특한 경험은 덤이다. 돌아가는 길에 직접 맛본 커피 원두를 구입하여 선물하는 것도 좋다. 테라로사 커피 공장은 빵을 주문하는 카운터와 커피를 주문하는 카운터가 구분되어 있으니 주문 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커피를 맛본 뒤에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해진 주문진 영진해변에 들르는 것을 추천한다. 커피공장에서 자가용으로 약 30분정도만 이동하면 주문진 영진해변에 닿을 수 있다. 방파제가 유명해지다 보니 메밀꽃으로 만든 꽃다발과 목도리, 우산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품을 대여해주는 상인까지 생겨났다. 그야말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갖춰진 곳이다. 너른 바다를 향해 돌출된 방파제 위에 서 있노라면 마치 김고은과 공유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든다. 영진해변은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운치가 있으니 강릉에 가게 된다면 들려보기를 바란다. 참고로 영진해변 방파제는 주말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 길다고 하니 평일에 찾는 것을 추천한다.

겨울 여행정보



☑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033-335-1966 www.yangtte.co.kr

☑ 영진해변

강원 강릉시 연곡면
(자가용으로 이동 시 네비게이션에 강릉
상희네횃집, 투게더펜션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 테라로사 커피공장

강원 강릉시 구정면 현천길 25
033-648-2760 www.terarosa.com
(매일 09:00~21:00 연중무휴)



(주)삼표



인재개발팀, 하반기 수시입사자 기본 교육 실시

(주)삼표 인재개발팀은 지난해 11월 23일~25일과 12월 21일~23일, 경주 삼표연수원에서 '16년도 하반기에 입사한 81명의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시입사자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경영관리팀 김한태 차장을 비롯한 사내외 강사진 6명은 ▲인사복지후생 제도 소개 ▲그룹 Biz 소개 및 원가관리 ▲Ignite SAMPYO ▲SAMPYO WAY(삼표 연혁 및 핵심 가치 소개) ▲비즈니스 매너 ▲업무 프로세스의 이해(경영 및 손익 마인드 배양) ▲비즈니스 문서 작성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하반기 수시 입사자들은 그룹의 핵심가치를 확인하고, 사업부문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업무 지식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담당 최윤길 상무는 “이번 하반기 수시 입사자 교육을 통해 삼표그룹에 대한 이해와 주인의식이 고취되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각자의 현업 부서 및 사업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삼표산업



화성물탈 공장, 업계 최초 '물탈 자동출하 시스템' 도입

(주)삼표산업은 지난 1월 9일, 화성물탈 공장에 '드라이물탈 (이하 명칭: 물탈) 자동출하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물탈 자동출하 시스템'은 공장 입구에 설치된 자동인식 시스템이 차량번호를 확인,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여 주문내역 확인 후 제품이 자동 출하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물탈 출하시간은 기존대비 50% 이상 단축되었고 24시간 출하 역시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Web&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전 거래처로 확대해 앞으로 (주)삼표산업의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 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이다. 드라이물탈 부문 이성연 대표는 “비록 물탈 사업의 후발 주자이지만,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여러 선진 IT시스템을 적용한 최첨단 스마트 제조 공장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레이콘 차량 안전 운전 동영상 제작 및 교육 실시

레이콘사업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업계 최초로 레이콘 차량 안전 운전 동영상을 제작해 30개 전 현장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레이콘 차량 안전 운전 동영상에는 ▲공장 내 차량 점검 및 이동 요령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 준수 운전 및 타설 ▲올바른 차량 청소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요인 분석 및 관리 방법 등이 담겼다.

레이콘관리본부장 송재철 상무는 “레이콘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 영상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레이콘 차량뿐만 아니라 벌크트레일러, 덤프트럭, 평판트레일러, 해상선박에도 안전운전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워크숍 개최

레미콘사업부가 지난 1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화성의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부서별로 지난 2016년 한해의 성과를 분석해 새해 목표를 계획하고 2017년도 부동산 시장전망과 환경 안전교육 등의 초빙교육을 실시했다. '신년의 밤' 행사에서는 권역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레미콘사업부가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미콘사업부 홍성원 대표이사는 "2016년도에는 8제 시행과 철도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수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2017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독려의 말을 전했다.



2016년 RC출하량 1,070만m³ 달성

레미콘사업부가 지난해 12월 6일 국내 레미콘업계 최초로 연간 출하량 1,000만m³를 돌파했다. 이로써 2016년도 최종 레미콘 출하량이 약 1,070만m³로 집계돼 국내 레미콘업계 1위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레미콘사업부 홍성원 대표이사는 "레미콘사업부 직원들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2020년이나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던 1,000만m³를 4년이나 앞당겨 달성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삼표기초소재㈜

사내 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삼표기초소재㈜는 지난해 12월 9일 충남 아산의 KPEC혁신 사관학교에서 이성연 대표이사와 KSA 전문위원, 기초소재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업무효율과 생산수율을 향상시키는 품질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총 11개 조가 경합을 벌인 결과, 금상은 'Slag mill 분쇄 원료 투입 Line 개선으로 Loss율 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징검다리 조가, 은상은 'Hot gas generator 실화 개선으로 Loss 감소'를 주제로 한 붉은노을 조가, 동상은 '시료 Data 신뢰도 향상 및 XRF 분석시간 단축'을 주제로 한 무지개 조가 각각 수상했다. 삼표기초소재㈜ 이성연 대표이사는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도출되어 삼표기초소재 임직원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기초소재㈜는 올 10월경 '제2회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경한 / (주)네비엔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철강 슬래그 순환자원 가치 홍보

(주)네비엔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슬래그 재활용 제품과 순환자원으로서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대전에서 네비엔은 슬래그 재활용 제품 모형을 용도별로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주)네비엔 박영동 대표이사는 "철강 슬래그 재활용 기술과 응용범위는 다양한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해 철강슬래그가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주)경한 / (주)네비엔



철스크랩사업부문, 회사 창립기념 산행 실시

(주)경한(주)네비엔 철스크랩사업부문은 지난해 12월 2일 (주)경한과 (주)네비엔, 동양자원(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오아사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오아사 둘레길 산행과 족구, 제기차기, 팔씨름 대항전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고 우수관리자 및 모범사원 시상식과 신규 입사자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주)경한(주)네비엔 임순태 대표이사는 “2016년 어려운 철강업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름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며 “2017년에도 더 높은 사업성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환경자원하역사업부문, 회사 창립기념 산행 실시

(주)경한(주)네비엔 환경자원하역사업부문은 지난해 12월 1일 (주)경한, (주)네비엔, 동양자원(주), 네비엔알이씨(주), 당진철도, 당진HE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영동군 민주지산에서 창립기념 산행을 실시했다. 이어 우수관리자 및 모범사원 시상식과 임원 및 부서, 신규입사자 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주)경한(주)네비엔 박영동 대표이사는 “2017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사업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실 강화와 아이템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삼표레일웨이(주)



‘삼표이앤씨(주)’에서 ‘삼표레일웨이(주)’로 사명 변경

삼표이앤씨(주)(Sampyo Engineering&Construction)가 지난해 12월 1일부로 삼표레일웨이(주)(Sampyo Railway)로 사명을 변경하며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금번 사명 변경은 조직 내 건설사업부문 철수에 따라 기존 사명을 보완하고 철도전문기업으로서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삼표레일웨이(주)는 사명 변경을 신호탄으로 2017년 경영 전반에 걸쳐 ‘변화’와 ‘핵심역량사업 강화’에 힘을 계획이다. 삼표레일웨이(주) 강기동 대표는 “사명 변경을 통해 철도전문 선도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해나가길 바란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삼표레일웨이(주) 오송공장, 무재해 6배 인증 달성

삼표레일웨이(주) 오송공장은 지난해 9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 6배 달성 인증’을 받았다. ‘무재해 목표 달성 인증’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예방운동으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목표한 무재해 시간을 달성하면 해당 인증을 받게 된다. 오송공장의 총 무재해 시간은 2007년 4월 26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112일로 처음 목표한 시간의 약 6배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인증패 수여식에 참석한 공장관리팀 김종길 차장은 “이번 인증은 오송공장 직원들이 땀 흘리며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삼표피앤씨(주)



삼표피앤씨(주), 포스코건설 우수협력사로 선정

삼표피앤씨(주)는 지난 1월 11일 인천 송도 앰배서더호텔에서 포스코건설이 주최하는 '2017년 우수협력사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포스코건설이 선정한 공사, 설비, 자재 각 분야의 우수협력사 대표 34명이 초청을 받아 오찬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협력사 대표 인사말 자리에서 삼표피앤씨(주) 최명식 대표는 "앞으로 삼표피앤씨(주)가 국내 파일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협력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기술력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표동양시멘트(주)



세상을 잇는 끈,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삼표동양시멘트(주) 봉사단의 연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섰다. 삼표동양시멘트(주) 봉사단은 작년 1월부터 매월 화단정비와 바다정화, 불우이웃 물품기부, 독거노인 명절음식 및 지원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실시해왔다. 지난 11월부터는 봉사단 회비와 직원 월급 기부로 마련한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배달하고 있으며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장 한상옥 상무보(삼척 공장장)는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반짝이는 것처럼 추운 날씨인 요즘, 나눔에 대한 작은 실천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전달되는 것 같다"라며 "더 많은 직원이 동참해 나눔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6년도 에너지절약 유공자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삼표동양시멘트(주) 기계팀 김동천 과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한 '2016 강원도 에너지효율대상'에서 '에너지절약 유공자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김 과장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등 에너지절약 국가정책에 참여하고, 삼척공장 폐열 발전소 설비 합리화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자 김동천 과장은 "삼표동양시멘트(주)는 14년('02년~'16년) 동안 에너지 절약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라며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에너지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했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신입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삼표	D/T영업팀 동부사업소	최재우	6급	2017.01.04
삼표	D/T운영팀 남서물류영업소	홍시온	6급	2016.11.25
삼표	D/T운영팀 예산사업소	윤영준	6급	2017.01.04
삼표	홍보팀	김선영	5급	2017.01.05
삼표기초소재	천안Slag공장 관리팀	김성환	사원	2016.11.21
삼표레일웨이	설계팀	김기호	5급	2016.11.01
삼표레일웨이	설계팀	김종익	5급	2016.11.01
삼표레일웨이	설계팀	윤성모	5급	2016.11.01
삼표레일웨이	오송공장 생산팀	김상민	5급	2016.11.14
삼표산업	RM1팀	윤종상	5급	2016.11.01
삼표산업	RM2팀	우영	5급	2016.11.01
삼표산업	서부공장 영업과	김승겸	5급	2016.11.21
삼표산업	송도공장 관리과	박정원	6급	2016.11.25
삼표산업	안성공장 관리과	곽문식	사원	2017.01.05
삼표산업	안성공장 영업과	유다솜	5급	2016.11.21
삼표산업	안양공장 영업과	김대식	5급	2016.11.21
삼표산업	인천공장 관리과	권순현	5급	2016.12.22
삼표산업	평택공장 관리과	윤정환	5급	2016.12.22
삼표산업	평택공장 품질과	박현준	5급	2016.12.19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생산팀	임정환	5급	2017.01.09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품질관리팀	안승진	5급	2016.11.16
삼표피앤씨	제천파일공장 생산팀	김학표	기능	2016.11.08
유니콘	대전공장 영업과	이상문	5급	2016.12.05

경력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관리과	김창은	사원	2016.11.16
삼표기초소재	정비팀 삼척정비	변일우	사원	2016.12.05
삼표기초소재	정비팀 화성정비	최현진	계장	2016.11.25
삼표기초소재	중기팀 예산사업소	김영대	기장	2017.01.02
삼표기초소재	천안Slag공장 생산팀	이정선	사원	2017.01.02
삼표레일웨이	콘크리트 신규사업팀	이수진	6급	2016.12.19
삼표산업	RM2팀	김현호	과장	2016.11.07
삼표산업	사업개발팀	류금영	과장	2016.12.05
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우강식	사원	2016.11.01
삼표산업	성수공장 영업과	강의경	과장	2016.11.21
삼표산업	양주공장 영업과	최우현	5급	2016.11.21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박준호	6급	2016.11.1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 생산팀	나효석	주임	2016.11.2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권영인	사원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김점식	계장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김정민	사원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서충기	주임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장홍복	계장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정성호	사원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조군수	기장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최두현	계장	2017.01.01
삼표산업	인천사업소	최현영	6급	2017.01.01
삼표피앤씨	CS팀	조남일	차장	2016.11.14
유니콘	아산공장 관리과	박육진	사원	2016.12.12



독자
퀴즈

- ❶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게 본 칼럼과 이유는?
- ❷ 향후 사보에서 읽고 싶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 ❸ 연말을 맞아 삼표·동양 자원봉사단은 OO과 OO, OO지역에서 대한민국을 횡단하는 연탄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 ❹ ㈜네비엔 단양 슬래그공장은 2016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OOO OOO 제품 인증을 받았다.
- ❺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단란함, 편안한 분위기를 지칭하는 말로,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하는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은?

위의 내용을 모두 채워서 3월 10일까지 이메일[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 ❶ 유진호
- ❷ ㈜경한 슈레더사업소
- ❸ 훈민정음 해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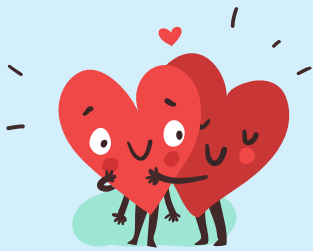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삼표 FC영업팀 이경섭 차장
(주)삼표 경영개선팀 조희찬빛 사원
(주)삼표산업 총무팀 김혜원 과장
(주)삼표산업 혼화제공장 영업과 임용주 대리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관리팀 전찬희 과장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 / 레미콘 삼표산업 레미콘기획팀 한신 사원 hs1206@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사원 clzls77@sampyo.co.kr / 철도 삼표레일웨이 경영기획팀 전지혜 사원 jjh6906@sampyoenc.com
건설 삼표피앤씨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sso4942@sampyopnc.com / 분체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물류 삼표 신규영업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 시멘트 삼표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대리 jinho.choi@tongyang.co.kr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 너,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행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삼표는 2017년 새해에도 이웃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지며

훈훈한 온정을 나눌 것입니다.

SAMPYO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Tel) 02-460-7111 Fax) 02-464-0489